

! 주목!

오리업계가 챙겨 봐야 할 업체들

이번 대전국제축산박람회에는 사료, 첨가제서부터 축사지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체가 참여해 축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는 행사였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축산의 생산성은 더욱 배가시키면서 현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동물복지와 친환경 축산에 발맞춰 이를 겨냥한 약품과 첨가제가 대거 등장했다는 것이다.

현재 몇몇 동물약품업체들은 이미 천연제를 사용한 첨가제 및 항생제 대체제를 전격개발,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그 외의 업체들도 연말부터 내년까지 천연 새로운 첨가제 및 항생제 대체제를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기팬 등 축산 지재를 비롯해 분뇨처리기, 가축폐사체 처리기 등 다양한 시스템의 기자재들이 총망라 되어 있어 농가실정에 맞춘 축사설계가 더욱 용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면을 통해 이번 박람회에서 우리 오리업계가 눈여겨 볼만한 업체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 1. 축산기자재 업체



↑ (주)다르마 부스 전경 많은 관람객들이 직접 제품을 보고 만져보며 관계자와 상담 하고 있다.

※ (주)다르마

전북 익산에 위치한 (주) 다르마는 농축산기자재와 기타 관련기구를 수입,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전문 업체로 1996년 창립 이래 오리농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다.

특히, (주) 다르마의 제품 중 환기 및 급수·급이 시스템은 많은 오리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기가 높는데 이번 박람회에서는 환기시스템을 중심으로 기존의 오토환과 더불어 새로 출시된 EOS환과 라이트 필터, 전동샷다, 쿨링패드 등을 전시해 양육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시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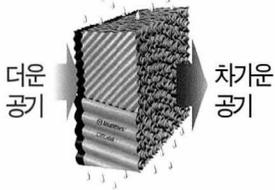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유로엠 쉘



● EOS쉘(유로엠 쉘) ●

(주) 다르마의 야심작. 날개 뒷면에 셔터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셔터를 닫으면 외부로부터 빛이나 공기 차단이 용이하다.

또한, 환풍기 작동시에도 소음이 적고 수명이 긴 장점이 있으며 날개는 스텐레스 및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 그 외 하우징은 아연철판이다. 사이즈는 50", 36", 30"가 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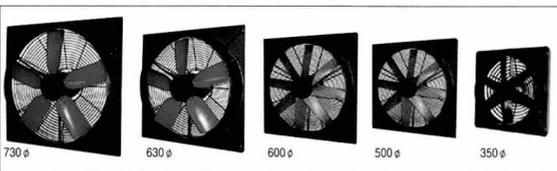


쿨링패드

최고의 품질과 성능을 자랑하는 문터스쿨링패드 외부온도를 4~5℃ 이상 떨어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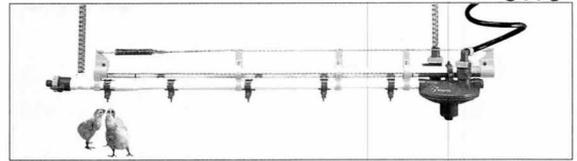
● Pericool 쿨링패드 ●

쿨링패드는 축사온도를 떨어뜨리고자 할 때 외부의 더운 공기를 투과시켜 차가운 공기로 변환시켜주는 시스템으로 축사내 온도를 약 4~5℃ 이상 떨어뜨려주는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어느 곳이든 설치가 용이한 장점이 있으며 현재 1500×600×100, 1500×600×150 두 가지의 사이즈가 출시되고 있다.



● 오토쉘 ●

속도조절이 가능하고 수명이 긴 제품. 낱플급수시스템 : 오리사에 효율적인 제품



이밖에도 낱플 급수기, 오토쉘 등은 (주) 다르마의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2. 사료업체



▲ (주)퓨리나 부스 전경. 깔끔한 부스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 (주) 퓨리나

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는 "최고급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보다 값싸게 생산해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한다"는 이념 하에 성장을 거듭, 국내 사료업체의 주축기업 중 하나라는 인식을 심는 데 성공하였다.

(주)퓨리나코리아는 다국적 기업인 미국의 카길 (Cargil)사와 통합해, 더욱 커진 규모를 자랑하는 한편, 그에 합당한 기술 및 품질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퓨리나코리아는 오리 산업이 점차 커지는데 비해, 사료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착안, 육용오리와 종오리, 그리고 육성단계별로 분리해 전문화된 오리사료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 퓨리나 오리사료만의 특성 ●

퓨리나의 오리사료는 성장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료별 체내 이용성을 감안해 배합비를 구성함으로써, 성장이 빨라 조기 출하가 가능하며, 육질이 개선된다.

또한 종오리의 경우 특유처방의 비타민 및 광물질이 첨가되고 영양소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부화율이 개선되고 새끼오리의 품질을 우수하게 한다.

● 퓨리나 오리사료 급이 프로그램 ●

<육용오리>

사 료	급이기간
퓨리나 어린오리 크럼블	0~5일령
퓨리나 어린오리 펠렛	6일령~3주령
퓨리나 육성오리	4주령~출하

<종오리>

사 료	급이기간
퓨리나 어린오리 크럼블	0~5일령
퓨리나 어린오리 펠렛	6일령~3주령
퓨리나 육성오리	4주령~10주령
퓨리나 육성오리 I	11주령~20주령(제한급이)
퓨리나 종오리	21주령~도태(제한급이)

》》 3. 첨가제 업체



※ (주)리팜

축산이 점차 규모화, 집약화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분뇨처리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편, 무항생제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첨가제 및 항생제 대체 물질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유기 첨가제 전문업체 (주)리팜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한번에 개선하기 위해 가축의

생산성은 물론, 농장의 악취 등의 환경 개선에 탁월한 유기제재인 리팜 그레놀과 락토를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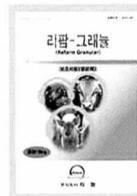
이들 제품의 특징은 미생물의 작용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축체에서 분뇨처리에 이르기까지 생물의 FEEDBACK에 거스르지 않는 친환경적인 시스템에 있다.

현재 소, 돼지, 닭, 오리 등 대부분 축종에서 활용가능하다.



↑ (주)리팜 관계자의 제품 설명 모습

● 리팜 그레놀 ●



리팜 그레놀은 사료 1톤당 1Kg을 해당 가축에 급이시, 각종 미생물로 인해 순환기 계통의 질병을 감소시켜 주며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증체율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배출된 분뇨는 미발효에 의한 파리, 구더기의 먹이 공급을 차단시켜 해충피해를 저감시키고 퇴비활용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오리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축사 내외 환경 개선에도 일조해 무항생제 축산을 가능케 하고 있다.

● 락토(Lacto) ●

락토(Lacto)는 가축분뇨에 직접 투입하는 제품으로

오리업계가 챙겨보아야 할 업체들



악취의 원인인 부패균과 길항하는 천연 미생물제제를 분뇨와 반응시킴으로서 빠른 발효와 분해를 통해 토비와 축분을 유용한 영양원으로 재합성해주는 제품이다.

분뇨처리에 고심하는 축사라면 이 제품이 제격.

》》 4. 동물사체처리장치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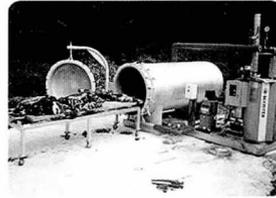


▲ (주)태성기계 부스 전시 모습.



▲ 직접가열식 동물사체 처리장치에 대한 실용신안 등록증

● 제2세대 직접가열식동물사체처리장치 ●



직접가열식 동물사체처리장치 가동 모습.

제2세대 직접가열식 동물사체 처리장치는 검역소에서 폐기되는 가축처리시, 도축장 및 가공장 부산물 처리, 질병에 의한 폐사 등 폭넓은 용도로 쓰이며 직접가열방식으로 효율성은 높이고 200℃ 이상의 고온·고압 스팀으로 폐사축을 직접 가열처리해 완전 멸균시킴으로서 2차 감염을 예방하는 기기이다.

※ (주)태성기계

최근 축산농가들은 폐사되는 가축의 처리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종전에는 매립이나 타 가축의 사료 등으로 재사용이 가능하였으나 법적으로 매립이 금지되고, 또한 전염병 및 질병에 의해 폐사된 가축을 타 동물에게 직접 먹일 경우 발생될 수 있는 2차적인 질병으로 폐사 가축의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주)태성기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폐사가축처리를 연구 개발하여 특허청의 특허를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우수 여러 축산농가에 제작 설치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주)태성기계는 축산에서부터 산업, 철물, 환경, 배관, 취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계설비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기계설비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

〈1세대와 2세대의 비교표(돼지 및 닭 처리용 기준)〉

	1세대, 폐사 가축처리기	2세대, 직접가열식동물 사체처리장치
1회 처리량	300~500kg	300~500kg
1회 처리시간	4~6시간 가동, 4시간 식힘	1~1시간 반 가동, 4시간 식힘
1회 연료 소비량(경유)	30~60리터	14~18리터
1회 응축수량	250~300리터	11리터
사용압력	3~4kg/cm ²	3~4kg/cm ²
사용온도	120~140℃	120~150℃
보일러 교체비용	약 500만원(5년 1회)	절감